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음 6월 12일) 제20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내년 예산확보로 전북대도약 실현

### 송하진 지사, 정부 방문 기재부 예산실장 등에 전북현안 반영 건의

송하진 도지사는 23일 기재부 예산실장, 총괄 사회 경제 복지예산심의관 등 예산 키(KEY)맨 핵심인사를 방문해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송지사의 이와 같은 예산확보 전력 투구 활동 배경으로는 지난 5월 25일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제출된 전북도 부처예산은 전년 대비 6,417억원이 증액된 6조 2,964억원으로, 사상 처음 부처단계에서 6조원대를 확보해 전북대도약의 발진 기반을 구축했다.

매년 국회단계에서의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 기재부 단계에서 부처변영 사업 삭감방지와 과소 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 증액 활동으로 정부안 예산이 최대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적인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지사는 먼저 기재부 구운철 예산실장과 안일환 총괄심의관을 차례로 방문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평항 수요조사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신속추진과, 공기단축을 위한 예타 면제 건의와 함께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5억원을 요구했다.

또한,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위기관리특별지역 대책사업인 상용차 자율(군집)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친환경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기반구축' 사업비 100억원 지원과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평평가센터 구



“신기하죠?” 23일 전주시 덕진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린 ‘외래잡초·해충 및 천적전시회’를 찾은 어린이가 관람객들이 외래 잡초와 외래 해충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 20억원,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 실시 설계 용역비 20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 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순환링' 건설 등 새만금 SOC 핵심 5개사업 국비 6,290억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어, 문성유 사회예산심의관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여 전라도 3개 시도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천년 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획 수립할 수 있도록 '전라천년문화권 광

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5억원,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와 연계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6억원 등을 적극 요청했다.

끝으로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 및 이상원 복지예산심의관을 방문하여 전북지역을 4차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 성장시키기 위한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 50억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에 따른 VR/AR 특화모델 개발을 위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설계비 등으로 국비

50억원 건의와 사회적경제 조직단체 중심의 지역 순환경제 핵심거점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국비 40억원, 지역 공약 사업인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비 국비 2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향후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 말까지 송하진 지사 등 지휘부, 실국장 등이 국가예산 확보에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社 告

## 2018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2018년 7월 28일(토) 오후 1시  
장소: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

전주매일신문이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8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를 오는 28일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에서 엽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연맹
- ▲후원: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전주시, 전주매일신문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063-288-9700)



## 무주 적상 상가마을 주민 “악취, 더 이상은 못참겠다”

### 마을인근 새끼 돼지 육성 돈사 개축 허가에 반발 나서 축사 사업주는 ‘강행’ 의지 주민들은 ‘반대’ 입장 고수

마을 인근 양돈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감내해오던 마을주민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무주군 적상면 삼거리 상가마을 주민 60여명이 23일 무주군청 옆 차림터에서 군수와 관련부서장, 담당자 등과의 면담을 비롯해 자신들의 민원제기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적상면 삼거리에 소재한 해당 돈사는 약 23년 전에 세워져 10여년 정도 돼지를 사육해온 곳으로 앞선 13년 건은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전 소유주가 가족사육을 중단해 왔었다. 이후 새로운 소유주 최모씨가 등장하며 지난 1월 경 무주군 민원봉사과 건축계에 건축 신청허가를 접수 후 3월 27일 총 6동의 돈사(3,130㎡), 사육두수 1,200두(3,200두 규모)의 개축허가 최종 승인통보를 받아냈다.

총 사업비 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해당 돈사는 전북도로부터 용자 받은 축산발전기금 8억여 원과 자부담 2억여 원, 나머지 사업비는 관련 사회사의 용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사반대라는 머리띠와 플래카드를 내 건 주민들은 “기존 축사의 냄새와 파리, 모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도 참았는데 기간 사육치 않던 돈사를 인수한 양돈업자가 울 초 개축허가를 거쳐 돈사를 짓고 있는 중”이라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여 년 전 동네에서

100m 남짓한 거리에 축사가 들어선 이후 조금이라도 습한 날이면 악취로 인해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파리, 모기가 창궐하는 것은 물론, 돈사에서 나온 폐수가 흘러내리는 농수로의 물로 모내기를 한 농가는 40~50%의 모가 죽은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만 해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돈사주인이 마을 쪽에 가까운 돈사는 운영하지 않는 배려라도 했는데, 그 돈사를 새로 인수한 양돈업자는 마을 지척에 있는 돈사까지 자돈(새끼 돼지)을 키우는 대규모 돈사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돼 양돈업자와 군청에 항의하러 나왔다”고 토로했다.

정태성 시장은 “우리 마을 인근은 청정지역으로 55가구 108여 명의 주민이 오미자, 복숭아, 천마 등을 키우는 말 그대로 청정지역인 곳”이라며 “합법적이라 해도 마을 100m 인근에 축사를 허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충과 반대를 고려해 법적하자 등에 대한 검토를 했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 승인을 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마을주민들은 해당관서에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집회기간으로 신고해놓은 상태로, 무주군청과 해당사업장, 축산발전기금을 용자해준 전북도청에서의 집회까지도 불사할 태세이어서 향후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무주=전문선기자



23일 무주군 적상면 삼거리마을 주민들이 돈사개축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투신자살... “청탁 무관”

### 드루킹 불법자금 의혹 받아 유서에 기록... “가족에 미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8분께 서울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관련기사 2면·3면)

노 원내대표가 아파트 현관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 17층~18층 계단 참에 노 원내대표의 의투와, 의투 속 지갑 및 신분증, 정의당 명함, 유서 등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자인 경비원은 “분리수거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펑 소리가 나서 보니 사람이 떨어져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노 의원의 모친과 동생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의 자택이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있다보니 국회 일정 등이 많은 노 의원이 이 집에도 머물렀다는 전언이다.

노 원내대표는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9)씨 측으로부터 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뉴스

엄마는 아이와! 아이는 아바따라  
예쁜 여름, 여행

2018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 고창갯벌의 신라 축제

2018. 8. 3(금) ▶ 5(일) 3일간  
고창군 심원면 만돌갯벌체험학습장

주관: 고창갯벌축제위원회  
우원: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사)고창풍천장어양식사업협회, (사)고창인수원, 만월어촌계, 고창군수업어촌계협의회, 자율관리동계, 인수원(주)만월항지역본부